

박주선 “문재인, 2017년 대선불출마 선언해야”

‘당권-대권 분리론’ 내세워

연일 파상공세 펼쳐

주말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

대거 광주·전남 방문 지지 호소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의 ‘대(對) 문재인 공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박지원 의원의 ‘대권-당권 분리론’을 내세우며 문 의원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나서 친노(친 노무현) 대 비노(비 노무현)의 대립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문 의원의 당권도전을 ‘대선평가 불복’이라고 규정한 박주선 의원은 4일 문 의원에 2017년 대선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는 등 연일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원의 출마를 ‘친노 패권 공고화’와 ‘대선 유일후보 체제 공고화’로 규정하고 “문재인 후보가 진정으로 당을 살리고 계파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까지라도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는가 아니면 2017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패배 당시 정계 은퇴, 의원직 사퇴 등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문 의원은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이외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 의원은 2년 만에 다시 당권 장악에 나섰다. 목표는 ‘2017년 대선 후보’라고 밝혔다. 대선 패배의 유일한 책임마저도 지지 않겠다는 말바꾸기 정치”라며 “문 의원은 비대위원을 역임한 상태에서 직접 당대표로 출마했다. 심판이 선수로 출전하는 야당 정치사에 유례없는 구태다”라면서 문 의원을 강하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지난 2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인영, 박지원, 박주선 의원.

비난했다. 아울러 일찌감치 ‘대권-당권 분리론’을 내세워 문 의원의 당권도전을 반대해왔던 박지원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를 뽑는 전대이지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대가 아니다”라며 “문 의원 본인도 2017년 대선이 목표라고 했다. 대권후보가 당권을 잡고 있으면 누가 대통령선거에 나오려고 하겠나”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3일 제주도당에서 열린 단배식과 당원 간담회에서 대선 후보가 당권까지 가져서는 안 된다는 당권-대권분리론을 놓고 문 의원에 날을 세웠다. 그는 “앞으로 있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당권과 대권을 구분해야 한다. 당 대표는 강한 야당을 이끌고 통합대표로서 일할 수 있어야 하며, 대통령 후보는 꿈을 주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당권과 대권을 나눠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대선 실패에 대해서도 “우리는 패배에 대해 반성과 책임이 부족하다. 땅을 치고 빌어야 할 일”이라며 문 의원을 몰아부치기도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은 지난 2일 잇따라 광주와 전남 지역을 방문해 호남 구애를 펼쳤다.

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선, 박지원, 이인영(기호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나란히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고, 박지원 의원은 앞서 오전 선전의 영정이 모셔진 광주학생운동기념탑을 참배했다. 이들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전남도당 하례식에 참석해 당원들을 만나 지지 호소했다. 당 대표에 도전한 조경태 의원도 이날 광주·전남을 방문,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단체장을 만나 지지세 확보에 나섰다. 최고위원 출마를 한 주승용·전병헌 의원은 이날 광주와 전남 일대를 돌며 지지를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野 시·도당위원장 자리 놓고 지역 정치권 갈등

광주시당-박해자 추대 움직임에 강기정 도전 검토

전남도당-연일 노리는 이윤석에 황주홍 “경선 불사”

호남 정치의 위기와 복원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지역 정치권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내년 총선 공천권이 대거 시도당으로 위임될 가능성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지역 정치권의 현안 조정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시당위원장은 박해자 의원(서구 갑) 추대 분위기가 조성되고 강기정 의원(북구 갑)이 도전을 적극 검토하면서 경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강 의원은 이날 “광주시당을 생활정치와 인재 양성의 산실로 만들기 위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9대 국회 전반기 임내현 의원(북구 을)이 시당위원장을 맡으면서 양보했던 박해자 의원이 차기를 맡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또한 강 의원이 3선 의원인데다 최고위원을 지내고 당 대표까지 도전한 바 있다는 점에서 시당위원장에 연연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시당위원장 경선에

따른 지역 정치권의 갈등 양상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도 의원은 “차기 시당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이미 공감대를 이뤘지 않느냐”며 “강 의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당위원장 선출도 경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의 연일 움직임에 황주홍 의원(강진·영암·장흥)이 경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후보 등록(7~8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합의 추대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경선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처럼 시도당 위원장 경선 가능성이 높아

짐에 따라 지역 정치권이 소통과 대화를 통한 조정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호남 정치의 위기 국면에서 시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진투구를 벌이는 것은 지역 정치권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대에 나서는 당권 주자들이 차기 총선 공천을 시도당에 대폭 위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면서 “시도당위원장의 권한이 커진다는 점에서 합의 추대보다는 경선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선이 실시될 경우, 시도당 위원장 후보 등록은 오는 7~8일 이틀간 이뤄지며 경선 방법은 ‘대의원 50%+권리당원 50%(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최종 결과는 18일 치러지는 광주시당·전남도당 대의원 대회에서 발표되며 대의원 투표는 당일 현장에서, 권리당원 여론조사는 대의원 대회 직전에 치러질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 다시 민주당?

박지원·문재인, 당명 변경 시사

안철수·김한길·박주선은 반대

새정치민주연합 2·8전당대회에서 당명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논란은 유력 당권주자인 박지원, 문재인 의원이 먼저 당명을 ‘민주당’으로 바꿀 뜻을 밝히자 이전 지도부인 안철수·김한길 전 공동대표 측이 ‘발끈’ 하면서 촉발됐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문재인 의원은 당명을 새정치민주당으로,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새정치연합 대다수의 의원과 당원, 특히 호남 당원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새정치연합’보다는 ‘민주당’이란 표현을 자신의 당인 양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통합 당시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였던 안 전 대표의 대국민 지지율이 하락,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당명 개정 주장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안 전 대표가 발끈하고 나섰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우리가 당명에 새정치를 포함하고 당명을 바꾼 것은, 낡은 정치를 바꾸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당명 때문에 우리 당이 집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같은 날 김한길 전 대표와 가까운 민병두 의원의 지난해 3월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합당을 언급하며 “1년의 (정치)실험도 끝나지 않았고 합당정신도 있다”며 “이해하기 힘들다”고 가세했다.

호남의 또 다른 당권주자인 박주선 의원도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10여년의 선거 패배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분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다시 당대표가 되겠다고 출마를 강행하면서 모든 책임을 ‘당명’에 떠넘기고 있다”며 “바뀌어야 할 것은 ‘당의 이름’이 아니라, ‘당의 리더십’이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 공천제도 개정 착수

친박계 반발 등 충돌 예상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화약고 가 될 수도 있는 공천제도 개정에 착수, 당내 계파 간 충돌이 우려된다.

혁신위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오픈프라이머리와 소선거구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석파출제 도입, 여성 후보 가산점 신설 등 공천 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4일 당 관계자가 전했다.

지난해 9월말 6개월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혁신위는 지금까지 출판기념회 금지, 불체포특권 개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제는 공천물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김부성 대표나 김문수 특위위원장은 당 대표 또는 당권을 장악한 특정 계파가 공천을 쥐락펴락 했던 과거 패배를 없애자는 명분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다만,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경우 인지도에서 월등한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의원의 당협위원장 겸직 금지와 총선 3~6개월 전 당협위원장 사퇴를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특위 관계자가 전했다.

문제는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누구보다 친박계에서는 당권을 장악한 비박계가 자신들을 슈아내 ‘몰살’이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다. 예컨대 선거 전 당협위원장 사퇴는 마치 기업에서 인사 전 일괄 사표를 받은 뒤 재신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권을 권 쪽에서 어떻게 규칙을 정하느냐에 따라 윤택이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636 걸고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검색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기본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眞'심서언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강선자들이(주)콜피어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백 (6,000원)

625대안리는안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른쪽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싹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에!!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칩한소장수는 불경기용 맞춤프랜즈 손님들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